

노만 필 박사는 항상 적극적 사고방식을 강조한 사람으로 어느 날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한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그 부인은 계속해서 주변환경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좌석이 불편하고 시트가 지저분하고 청소도 제대로 안 돼있고 승무원도 불친절하다는 등 불평을 했습니다. 이때 부인의 불평을 듣고 있던 남편이 필 박사에게 인사를 하라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들을 소개하기를 “저는 변호사이고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필 박사는 “그럼 부인께서는 어떤 것을 제조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웃으며 “제 아내는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부인처럼 불평을 만드는 제조업자가 아니라 감사를 만드는 제조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제조업자만이 시련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마일리지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 카드, 주유소, 전화요금, 심지어 화장품가게나 슈퍼마켓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 사면 스티커를 주거나 카드를 발급해 주고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특별상품을 준다는 누적보상제도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주부들은 이러한 마일리지카드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누적되면 될수록 좋은 것이 있고, 누적되면 오히려 손해인 것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과로, 미워하는 마음, 편견, 나쁜 습관, 과도한 소비는 누적될수록 손해입니다. 그러나 누적 될 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많이 웃으면 다른 사람의 머리 속에 좋은 인상이 누적됩니다. 많이 걸으면 건강이 누적됩니다. 칭찬이 누적되면 점점 밝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에 교양과 품위가 누적 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킬 때마다 신용이 누적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가 누적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마일리지의 특징은 처음 몇 번으로는 별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랫동안 그리고 자주 이용해야 그 점수가 누적되어 특별선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감사의 마일리지 카드에는 얼마만큼의 포인트가 적립 되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큼의 감사가 누적 되어져갑니까? 감사는 하지 않으면서 은혜의 보상만 바라는 것은 잘못 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저희는 사랑의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강북노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 등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❶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남은 한 해 동안도 주의 평안이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❷ 7월 중보기도카드를 보시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독교 악법(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생활동반자법 등)이 저지되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❸ 담임목사님께서는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기위해 기도원에 들어가십니다. 성령님의 기름부음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❹ 매주 수요일에 거리전도를 합니다. 이 지역의 생명 구원에 한알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이번 주 식당봉사 - 연합 ▶ 다음 주 - 5셀

◆ 7월 행사 일정

일	교회행사
7/2	맥추감사주일
7/29~30	청소년부 하계수련회

◆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이충원
- 부교역자 : 강성찬
- 교육간사 : 이지영 • 행정간사 : 정동배
- 시무장로 : 장순산 조태형
- 협동장로 : 김수근
- 성가지휘 : 전영희 • 반주자 : 이소희 홍숙의

◆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유 치 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9: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청소년부	오전 9:00
수 요 예 배	오전 11:00	청 년 부	주일 오후 2:00
금 요 기도회	밤 9:30	새벽기도회	새벽 5:00

* 이 제작물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